

일본연수를 미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연구소

이 준 승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의 사업중 근로자 직업병 예방사업관련 작업환경측정 연구 목적으로 1996년 1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본 연수길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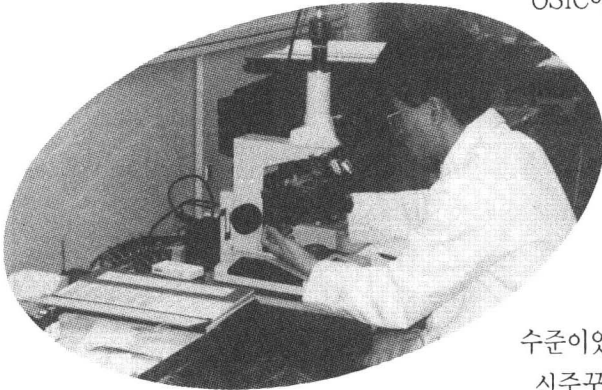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같은 아시아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서 별 부담감없이 출국길에 나섰다. 외국의 첫 인상은 그 나라의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항에 도착해서 JACA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공항 bus를 타고 첫번째 목적지인 Osaka International Center(OSIC)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

출발시간 보다 20분 먼저 bus에 올라서 JICA 안내원과 인사를 하고 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사를 마친 그 안내원은 나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듯 먼 발치에서 bus가 출발할때 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생활습관 같아서는 bus를 태워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그들의 생활습관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의 첫날은 시작되었고 OSIC에서 여장을 풀었다.

OSIC에서는 3주동안(2월 2일까지) 일본의 문화, 종교, 생활, 교육 등에 대한 Orientation과 일본어 교육일정이 잡혀 있었다. OSIC는 시설면에서는 양호하였고, 식사는 여러나라에서 연수생들이 오기때문에 메뉴가 다양했지만 OSIC에 있는 동안 김치의 아쉬움은 떨쳐 버릴수가 없었다.

OSIC에서의 집중 일본어 교육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너무나도 tight하게 짜여져 있었다. 숙제는 왜 그리도 많은지, 교육준비를 하지못하면 개인의 망신이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망신이기에 잠은 새벽에 청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어 강사 또한 말은 시간내에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강의를 해나갔으며, 훗날 집중 일본어 교육이 연수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이 일본식 영어라서 알아듣기가 힘들었고, 상대방에서도 나의 오리지날(?)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본인과 영어로 의사소통 하기란 문제가 있었다.



일측협에서 Asbestos 정성·정량 연수

OSIC에서의 생활은 여러나라의 연수생들과 접할 수 있어서 참으로 유익했다. OSIC에서 수료식을 하고

첫번째 연수지를 향했다.

일본에서 가장 빠르다는 신칸센을 타고

동경까지 갔으나 폭설때문에

2시간 40분거리가 4시간이나 걸렸다.

신칸센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은 우리나라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중간정도 수준이었다. 두번째 여장을 풀 곳은 동경역에서 30분 거리인 신주꾸 였다. 동경이 일본작업환경측정협회에서 작업환경중

Asbestos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대해서 연수하였다.

일본작업환경측정협회(일측협)는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노동성 지도하에 작업환경측정사, 작업환경측정 기관 및 자사 측정사업장이 모여 측정업무의 개발과 작업환경측정사 강의 및 교육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일측협의 주요업무로는 작업환경측정사의 실기교육 및 강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주관, 각종 강습회 개최, 측정관련정보 수집 및 책자발간, 작업환경측정사의 기술 Level Up을 위한 실무강습, 조사연구 사업 및 정부의 행정정책 협력 등이다. 조직으로는 전국에 13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회원으로 1,250회원(자사 측정사업장 230, 작업환경측정기관 420, 작업환경측정사 600)과 찬조회원 100회원(위탁측정 사업장 50, 법인 및 개인 5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비슷하였고 새로운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기법에 대한 Level Up강습회가 참으로 유익했다. 마침 일측협의 고니시씨는 우리 연구소에 Asbestos 및 유기용제 정도관리 전문가로 두 번 다녀갔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다. 강습회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준비 및 강의 내용은 한치의 빈틈없이 철저했다. 일본의 작업환경측정사(우리나라의 측정기사)는 우리와 달리 세분화가 되어있었다. 우리나라는 측정기사 1급과 2급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소음, 방사선의 5가지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각의 자격증이 주어졌다. 또한 측정사 2급은 현장에서 샘플링만 할 수 있었고 1급은 측정디자인 및 샘플링, 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현장에서의 샘플링 경험이 없으면 분석이 힘들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작업환경측정 및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달리 Area Sampling을 주로 하고 있었다. 작업환경이 깨끗하면 개인에게 유해물이 폭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으나 Personal Sampling을 주로하는 우리와 장단점이 있었다.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우리는 TLV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은 노동성의 범규에 의한 제1, 2, 3 판리구분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일측협에서는 Bulk 시료에 대한 Asbestos의 정성 및 정량 방법을 연수했다. 일본에서도 Asbestos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은 high level이라고 전해 들었으며 고니시씨는 Asbestos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명성이 대단한 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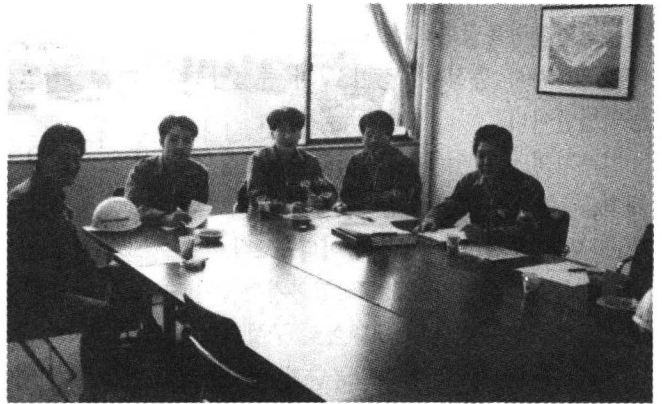
처음에는 하루종일 현미경만 봐야하는 나날들에 눈알이 빠지는 듯 힘이 들었고 Asbestos 정성분석에 있어서 색깔의 개념이 고니시씨와 달라서 참으로 애를 먹었다. Asbestos에 대한 교육내용을 Video로 찍어서 discussion해주는 섬세함까지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일측협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3월 2일 다음 연수자인 요코하마의 예방의학협회로 향했다.

요코하마는 신주꾸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거리인 항구도시였다. 3월이라 항구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추운겨울을 녹이고 있었다. 예방의학협회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요코하마시의 작업환경측정, 분석, 건강진단, 모자보건 및 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업무의 성격이 우리 협회와 비슷했다. 분석실에서는 많은 기장비가 자동화되어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측정에서 분석까지의 시간이 빨랐다. 분석에 있어



요코하마 예방의학협회 직원들과

서 필요한 최신장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있다는 말에 참으로 부러웠다. 일본에서 작업환경 및 특수검진 정도관리에 있어서, 작업환경측정은 작년(1995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늦었지만 특수검진은 우리나라에서 하고있지않는 항목도 많았으며 체계화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특수검진의 대사산물에 대한 분석과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연수를 받기로 했다. 분석에 있어서는 연구소에서 해왔던 업무였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새로운 항목과 분석방법에 대해서 배워나갔다.



요코하마 예방의학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현장실습을 나가서

예방의학협회에서의 연수기간동안 3번의 현장측정을 나갔는데, 일본의 공장들은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었고, 측정에 임하는 측정사들의 자세가 자기의 회사처럼 측정 및 개선안을 찾는 모습이 참으로 좋았다. 공장의 담당자들도 측정사들을 신뢰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보기좋았다.

벚꽃이 활짝피어 거리의 화사함을 느낄때쯤 연수를 마무리 짓고 노동성에서 연수평가회를 가졌다. 일본이 선진화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빵집에서 앞의 손님이 여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입구에서 줄지어 기다리는 여유와 질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려는 생활습관, 정류소에 bus가 정시에 도착해서 정시에 출발하는 확실한 약속의 개념 또한 한몫 했으리라 본다.

해외연수에 있어서 영어가 공통어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연수생활이나 개인시간에 있어서도 큰 불편함을 느낄것이다. 그리고 연수를 관광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수준비생들은 한시라도 생각을 달리해야만 한다. 이전과는 달리 연수생들은 연수기간동안 관광이나 하계꿈 그들이 가만히 놓아두질 않으며 개인과 회사, 국가에게 망신을 주지않으려면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근로자 직업병예방사업 관련으로 이와같은 연수기회를 주신 협회와 연수준비에 협조해주신 노동부, 과학기술처, 일본자문관실 및 바쁘신 중에도 자기직원처럼 보살펴주신 일본 현지의 연수기관 담당자에게 가슴깊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두서없는 글이 근로자 직업병예방 사업 및 연수준비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연수기간에 배웠던것들을 정리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 및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줄이고자 한다.